

증시 이틀 만에 시총 100조 증발... 상위종목 대부분 하락

1년 7개월 만에 2500선 무너져
美 물가 충격, 연준 고강도 긴축 기조
상위종목 대부분 3% 넘게 떨어져

코스피·코스닥의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틀 동안에만 시가총액 100조 원 가량이 증발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3.5%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무너졌다. 이틀 연속 하락세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대부분에서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11.54포인트(0.46%) 떨어진 2492.97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2400선으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 2020년 11월 초 2400선으로 올라선 이후 처음으로 1년 7개월 만이다. 또한 앞서 전날에도 지난달 12일에 기록한 연중 최저점(2546.80)을 이틀 연속 갈아치웠다.

하락 여파로 2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만 시가총액 총 98조원이 사라졌다. 전날 하루 동안만 시총이 88조원 증발한 이후 이날에는 하락폭을

줄이면서 10조원 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번 증시 하락세의 원인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재조명 받으면서 위험자산인 증시 회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전망 설문 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6.6%로 집계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했다.

또한 앞서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주식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뉴욕증시는 13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2.7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3.88%, 나스닥 지수는 4.68% 급락하는 등 급락세가 이어졌다.

이번 하락세 속에서 이틀 동안 시총 상위 종목에서 대부분 3% 넘게 하락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에서는 지난

10일 증가 대비 소폭 상승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일 증가(42만5000원) 대비 1500원 오른 42만6500원에 마치면서 소폭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6만3800원에서 6만1900원으로 하락해 2.98% 떨어졌다. 여기에 SK하이닉스 -4.25%, 삼성바이오로직스 -3.33%, NAVER -6.30%, LG화학 -3.26%, 현대차 -7.05%, 삼성SDI -5.18% 카카오 -4.37%, 기아 -5.34% 등 주가가 3% 넘게 내렸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위메이드가 이날에만 14.29% 내리면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한 데 이어 펠어비스 -6.29%, CJ ENM -5.14% 등 주가가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미국 물가 충격과 연준의 고강도 긴축 기조 우려가 증폭돼 전일 미국 증시 급락 영향에 코스피도 급일 개장 직후 2% 가까이 하락 출발했다"라며 "그러나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 코스피 낙폭 일부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안전자산 '금'으로 머니무브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자 개미들이 금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개인투자자들은 'KINDEX KRX금현물' ETF를 3억4733만원 순매수했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금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한투증권, 퇴직연금 모바일 앱 전면 개편

편의성 높은 '마이연금'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모바일 앱 'my(마이)연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이연금은 기존 퇴직연금 전용 앱 'eFriend Smart 연금'을 전면 개편한 리뉴얼 앱이다.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앱의 사용자 환경과 경험(UI/UX) 전반을 개선하고 상품 매매 관련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앱은 로그인 단계부터 상품 조회, 매매까지 이어지는 메뉴 체계를 대폭 간소화했다. 특히 홈 화면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펀드, 원리금보장상품 등의 금융상품 매매 화면으로 즉각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최적화했다.

금융상품 시세 조회 및 상품 추천 기

능을 강화했다. 호가, 차트 등의 가격 정보를 매매화면에서 한 눈에 파악 가능하며, 최근 수익률과 거래량, 보유량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 삼아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마이연금은 한국투자증권이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키스라(KISR A)'를 접목했다. 키스라는 기본적으로 시장수익률을 추종하면서도 일부 자금은 다양한 액티브 자산에 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핵심-위성' 전략을 바탕으로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준다.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고객들이 마이연금 앱을 활용해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디폴트 옵션 도입에 발맞춰 차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현대건설, 차세대 원전사업 로드맵 가동

세계적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美 대형원전 사업 진출 기반 마련

현대건설이 원자력 원천 기술 확보를 비롯한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차세대 원전사업 로드맵 전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소형모듈 원전(SMR),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원자력 전분야에 걸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윤영준 현대건설대표이사는 최근 창립 75주년을 맞아 임직원에게 발송한 기념

메시지를 통해 "현대건설은 국내·외 최고의 원전사업 선진사들과 협력해 총체적인 원자력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현대건설만의 창의와 도전의 DNA로 글로벌 1위의 원전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국내의 한국형 대형원전 34기 중 22기를 시공하며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대형원전 부문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총 18기의 국내 원전사업을 수행했다. 2010년에는 UAE 바라카 원전(1~4호기)을 수주하며 한국형 원전의 해외 첫 수출을 이뤄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4

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형 대형원전(AP1000 모델) 사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K원전 대표 기업인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원자력 에너지 기업들을 비롯해 국내 전문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차세대 원전사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췄다"면서 "원전사업 다각화와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원전산업의 게임 체인저로서 현대건설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dh@



UAE 바라카 원전 모습.

/현대건설

대신증권, 창립 60주년 기념 이벤트

항공권 등 2.5억 규모 경품

대신증권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경품이벤트를 연다.

대신증권은 온라인 거래매체 크레온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왕복 항공권, 아이패드, 호텔숙박권, 외식상품권 등 2억 5000만원 규모의 경품을 제공하는 '창립 6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을 각각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경품은 미국 왕복 항공권(2명), 아이패드 프로(6명), LG스탠바이미(6명), 호텔숙박권(10명), 나이키 운동화(10명), 3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60명)으로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선착순 3천명에게는 진에어 또는 모두투어 주식 1주를 추가로 지급한다.

/박민희 기자 wkh@

또한 미국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는 SK렌터카 주식 1주를 지급한다.

이 이벤트는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하려면 크레온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상원 대신증권 디지털부문장은 "이 이벤트는 주식투자 명가 대신증권이 60주년을 맞아 주식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고객 감사 이벤트"라고 말했다.

KB증권, 증여 통한 '절세 꿀팁' 세미나

저평가 자산 증여 방법 등 안내

KB증권이 오는 16일부터 3주간 매주 목요일에 '미래에 투자하는 첫 걸음! 왜 증여인가?'를 주제로 증여세미나를 개최한다.

KB증권은 금리 인상, 통화 긴축 등의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시장 침체를 활용한 저평가 자산 증여가 필요한 고객은 물론 증여를 통한 목돈 마련, 증여를 포함한 종합 세무컨설팅이 필요한 고객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강연은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와 2부는 KB증권 고객의 세무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는 세무자문팀에서 담당한다. KB증권 세무자문팀은 '투자의 핵심은 세무관리, 고객의 절세를 돕는 자

산관리 파트너'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증여세미나 1부는 세무자문팀 왕현정 팀장이 인플레이션 헤지, 장기투자, 세 부담 분산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증여의 효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장 쉽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2부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꿀팁에 대해 사례 별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부는 고객 자산전략부에서 금월 공식 출시 예정인 KB종합재산신탁 서비스에 대한 안내로 마무리 된다. 필요한 고객들은 3부까지 마친 뒤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는 KB증권 영업점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16일 삼성동금융센터, 23일 도곡스타PB센터, 30일 영일부곡금융센터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